

기관 돋보기 | 법성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로원’

충주시 직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산하 법성원(원장 오태성)은 무료노인요양시설로 2012년 설립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재활·여가 프로그램 등 입소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충북지역 노인요양시설 3개소 가운데 유일하게 전 영역 A등급을 받으며 충북도내 노인주거복지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법성원 직원들 모습.

2021년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충북지역 노인요양시설 중 유일 ‘전 영역 A 등급’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 영역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법성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현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학대피해노인 등 40명이 입소해 있다.

특히, 2019년 노인학대보호 입소시설로 지정을 받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 의뢰를 받은 어르신 및 긴급조치 대상자 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법성원은 입소자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인실 25개, 4인실 5개,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각각의 생활실

안에 TV, 냉장고, 에어컨, 옷장, 화장실 및 욕실을 빌트인으로 시공하여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시설 생활에서의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편의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성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등으로 구성된 종사자 13명이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기본적인 케어 서비스는 입소 어르

신들을 위한 생활상담, 사례관리, 기초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상태 파악 및 병·의원 동행 등의 건강관리, 양로원 생활 도움 지원, 개별상태 및 상황에 따른 맞춤형 건강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여가·재활·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심신 기능 유지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법성원의 특화사업으로는 충주에

소재한 석종사 사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보리의 소풍)를 운영하며 불교에 대한 간접 체험과 더불어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어르신에게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다도 체험, 연꽃등 만들기, 참선, 스님과 차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오태성 원장은 “입소자 어르신 중 타국에서 오랜시간을 거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가족과 단절되어 힘들어 하고 계신 어르신들 위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한국 거주 당시 주소를 찾아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력 끝에 가족과 연락이 닿아 재회를 하게 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 사례를 통해 가족의 사랑도 우리가 세심히 챙겨야 할 복지 서비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양로원을 운영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돌봄 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도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비교해 돌봄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질적인 서비스 향상과 충실한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의 적절한 직원 배치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성원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 서비스의 신뢰성, 전문성에 대한 3대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맞춤형 케어 서비스, 어르신의 존엄성 강화, 직원의 전문성 강화, 시설안전 체계관리,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어르신과 직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양로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종사자 권익보호, 급여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주무관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오 원장은 “입소자 대부분 보호자가 없어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드린다는 자세로 임하며, 입소자분들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 힘써온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듯 하다”며 “설립 이후 지난 10년 간 이를 함께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설치 공모 선정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2개소 설치... 장애인 권익보호 선제 대응

충북도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1곳을 설치하기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결과 충북이 최종 선정되어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함께 2곳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도는 충주시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금전적 절취 및 학대, 폭력 등 가해행위 신고접수, 조사, 긴급보호조치, 법률 지원 등 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충북도가 지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장애인 학대 피

해 예방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발휘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추가 선정은 청주시 소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최종단인 단양군 영춘면까지 왕복거리 300km 이상이 소요되는 곳까지 조사를 나가야 하는 낮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전국 3위, 2020년 전국 4위, 2021년 전국 2위로 신고 접수 건을 처리한 우수한 실적에 보건복지부의 높은 공감을 받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현재 전국에 18개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선정해 지원 중이다.(경기도 2개소, 그 외 16개 시도 각 1개소)

충북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한 힐링타임 추진

‘치유의 정원’, ‘내마음보고서’ 등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가 2019년, 2021년에 이어 3년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힐링타임 사업은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 확진 추세가 다소 감소한 만큼 올해 사업은 비대면 프로그램과 대면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꽃꽂이 등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의 정원’, 1:1 맞춤형 심리보고서 제작을 위한 ‘내마음보고서’ 등이다.

‘치유의 정원’은 7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면과 비대면강의(ZOOM)로

진행되며, ‘내마음보고서’는 8월31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참여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충북도 보조금 지원 시설종사자이며, 그 외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시설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프로그램은 힐링음악서, 통쾌한 힐링, 감정다독이 휴 힐링, 힐링콘서트를 진행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면프로그램은 총 90명, 힐링콘서트는 1,000명을 대상으로 추후 모집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프로그램과 ‘힐링음악서’에는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최종 대상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 대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는 협의회 누리집(www.cwin.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충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최대 145만원... 다음달 29일까지

충북도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별로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으로, 이달

24일~7월 29일 해당 지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4가지 종류의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다만, 시설 거주 수급자에 대해서는 내달 중 개인당 20만 원씩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충주시 직동에 위치한 법성원 전경.



입소자 어르신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옥천군,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옥천군보건소가 노인의료나 늙재단과 연계해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료나늙재단의 위탁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 운영되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로는 진단서(소견서)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필요로 하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해야 하고 지원 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목적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 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의 주된 인구층이 노년 인구인 것을 고려해볼 때 노인 무릎 인공관절 등 노인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방문보건팀(☎043-730-2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13일 옥천군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군과 8개 기관이 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치매 관리 연계·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옥천군,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

요양기관 이용·입소자 전문 민·관 협력형 관리체계 구축

옥천군이 군내 노인 복지 요양기관과 연계한 치매 관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결에 나선다.

20일 군에서 밝힌 중앙치매센터 치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이 지역 60세 이상 인구 100명 가운데 치매 환자 수를 짐작할 수 있는 '추정 치매 유병률'은 9%(2만1천298명 가운데 1천917명)에 달한다.

이는 충북 평균 7.76%(3만3천199명), 전국 평균 7.24%(91만727명)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군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에 대비해 노인복지요양기관 이용·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민·관 협력형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지난 13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이들 기관은 복지요양기관 이용자 치매 조기 검진,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인지기능별 맞춤형 지원, 치매 파트너 양성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첫삽... 내년 12월 준공



16일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여한 군 관계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이평리 일원에 109억원 투입

보은군은 16일 보은읍 이평리에서 보은 청소년수련관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상혁 군수와 군의원, 기관·단체장,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시삽과 안전지원제 등을 지내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군은 109억원을 투입해 연면

적 2912㎡,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예술 활동장, 특성과 수련장, 체육 활동장, 각종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설이 준공되면 지역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요리 체험, 실내 암벽등반, 스터디룸, VR/AR 체험, 댄스, 밴드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다.

군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상혁 군수는 “청소년수련관은 관내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보건소,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추진

증평군보건소가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이달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증진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를 실시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APP)과 스마트밴드(활동량

계)를 활용해 24주간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 보건소는 형석중학교 1학년 중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보건소는 지난달 31일 형석중학교를 찾아 참여 학생들에

게 디바이스 배포와 설명회를 마치고 1일부터 학생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시작됐다. 군 보건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건강 미션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6천 걸음 이상 걷기, 군력운동하기, 단 음식 마시지 않기, 패스트푸드 먹지 않기, 야채 섭취하기 등 건강 미션 수행에 따

른 포인트 점수를 쌓게 하고 매월 상위 10%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영양일기와 운동일기 작성코너를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 건강 관련 카드뉴스와 매월 1일 월간리포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서영 소장은 “미래의 주역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증평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에서 홍성열 증평군수, 임호선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증평군,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개최

체험활동·역량강화 등 자기개발 공간 역할 기대
활동 활성화·참여보장... 운영위원 13명도 위촉

증평지역 청소년전용 문화공간인 증평청소년문화의집이 문을 열었다. 증평군은 사업비 약 56억원을 들여 김득신문화관 옆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687.44㎡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고 16일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홍성열 증평군수, 국회의원, 군의원,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는 사무실과 강당, 2층에는 휴게공간과 게임실, 프로그램실, 3층에는 카페, 동아리실, 자치활동실을 배치했다. 군은 지난달 10일부터 노래연습실, 게임실 등 놀이공간을 개방하는 등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자기 공예와 탁구 등 7개의 문화프로

그램도 제공해 왔다. 또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참여보장을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13명을 위촉했고 댄스, 밴드 등 9개의 동아리회원을 모집하는 등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청소년문화의집은 9세~24세 지역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일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군, 지역사회와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 주력

축하금·의료서비스 등 지원

영동군의 유일한 산부인과 병원인 영동병원에서 올해 첫 아기가 탄생했다. 20일 영동군은 지난 17일 영동병원에서 다문화 가정인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3.37kg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영동군보건소는 관내 분만산부인과 첫 아기 출생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여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모을 예정이다.

군은 출산 전 임신부등록과 함께 엽산제, 철분제 및 출산준비 물품을 지원하고, 산전건강관리와 안전한 분만에 대한 꼼꼼한 안내를 해왔다. 이후에도 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지원 가능한 물품을 조사해 전달할 예정이다. 영동병원 산부인과는 농어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동군의 지원을 받는 산부인과로 2011년에 개설했다. 2017년도에는 33건의 분만이 있었으나 출생인구수의 급감 등의 원인으로 2021년에는 3건 출산이 있는 등 이용인원이 줄었지만, 전문 의료진 구성과 분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최선식으로 유지하며 언제든 신생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과 관련해 임신축하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에도 군은, mampan 임신 원스톱서비스, 난임부부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달 24일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 군내 11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업무협약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유현)는 지난달 24일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 군내 11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협력 구축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보호·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공동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참여기관으로는 괴산남산라이온스클럽, 괴산라이온스클럽, 괴산

군사회복지사회회,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 괴산군소상공인연합회,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한국BBS총북연맹 괴산군지회,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괴산증평지회 등 11개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홍순 괴산군사회복지사회회장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병란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청소년을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면

크 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2면~7면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8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9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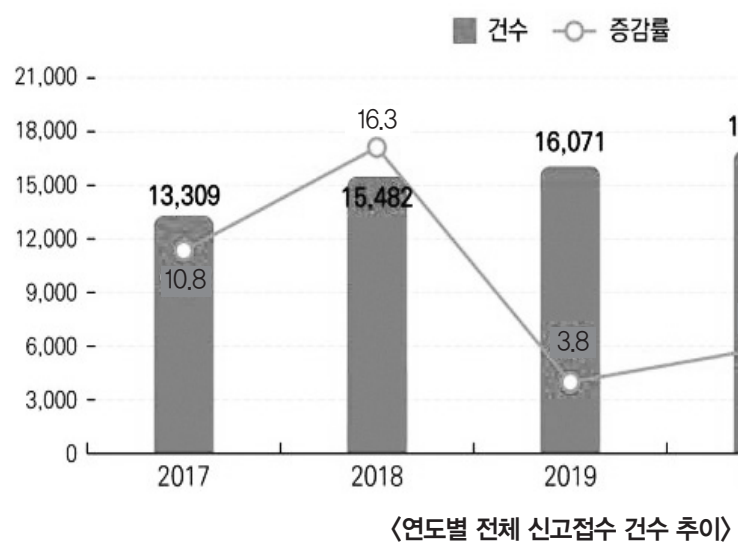
총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총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총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총북사회복지협의회 김슬지 대리 (T.043-234-0840~2)

노인학대 증가... 최대 가해자는 ‘배우자’



복지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지난해 신고 1만9391건

학대 반복 사례도 ↑... 가족 갈등·돌봄 부담 등 복합 작용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코로나19 장기화, 가족 형태 변화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이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6259건)보다 8.2% 늘었다. 신고 건수 중 34.9%가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것이다. 재학대 건수는 지난

해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 내 학대가 5962건으로 전체의 88.0%를 차지했다. 생활 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이 뒤를 이었다.

성별 학대 가해자는 남성이 5413명(64.3%)으로 여성(3010명·35.7%)보다 많았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배우자가 2455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2287명(27.2%)이 그 다음이었다. 이전 조사 결과들에서는 최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배

우자'가 최대 가해자로 집계됐다.

가족 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에서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가 뒤를 이었다.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2017년 26.3%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6%),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이다.

노인 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 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친족(549건), 피해 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326건), 복지시설 종사자(246건) 등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종사

하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860건으로, 전년에 비해 8.4% 줄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가구 형태 변화, 동거 가족 간 갈등,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노인 학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 감소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설 이용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직군별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가정 내 노인 재학대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및 신고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 홍보·운영 강화,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 노인 일자리와 연계 추진,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등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CCTV 설치·운영 방안,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올해부터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는 22일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산후조리 도우미의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관련 심의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에 15명 이내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 퇴소연령 '만 18→24세'로 연장한다

희망자 모두 보호연장...만 24세 전 자립도 가능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앞으로는 만 18세를 넘어 만 24세가 될 때까지 기존 시설에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2만4000명이 보호대상아동으로, 매년 2500명 가량이 이런 보호 조치에서 종료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세부 내용을 담아 만 18세에 달할 때 보호종료가 원칙이었던 기존 규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에 달할 때(만 24세까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대해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사물관리를 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급식지원 금액 책정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 가족 비극' 되풀이 막으려면 맞춤형 지원 시급

연구 보고서 "장애 특수성 이해하는 심리·정서 지원 필요"

장애를 가진 자녀와 그 가족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되풀이 되면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 가정의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부모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으로서 장애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5명과 관련 서비스 제공 담당자 및 일반 자살 예방 분야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집단면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는 장애 인지·수용 과정서 겪는 심리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제도적 모순, 가족이 주는 고통 등이 꼽혔다.

장애 때문에 구직에 실패하거나, 장애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담으로 부모 중 일부가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A씨는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있으면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다"며 "최소한 부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충분하지 않은 복지 서비스는 고질적인 문제다. 활동 지원이나 개별적인 복지 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현행

제도로는 이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성 장애인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하지만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자신의 처부를 다 드러내고 가난을 증명해야 제도권 안으로 어렵게 들어선다"고 토로했다.

연구진은 장애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문화·전문화하고, 촘촘한 사회 감시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의 요구가 높은 활동지원서비스나 독거 장애인 방문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에도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65세 미만 환자 가사활동 지원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7일 '2022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 21개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65세 미만에 대한 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장

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현황과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복지부는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 확대, 영양·위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급식비용 관리 등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청소년부모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첫 실시

내달부터 자녀 1인당... 6개월간 시범사업 후 효과 분석

정부가 내달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미혼모 같은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은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 6000원)가다. 실제 자녀를 양

육하는 경우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받는다

국가 지원과 별개로 가능...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국가의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받았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성격이 비슷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조리 도우

미 서비스 부담금 지원 등 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새 시행령에서 감면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능보강 사업비 전달

도내 사회복지기관 22곳에 2억3000만원 전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장비·환경 개선 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는 2일 도내 사회복지 시설·기관 22개소에 기능보강 지원사업 배분금 2억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선정 대상기관의 온라인 참여자들과 함께 충북 모금회 박흥철 사무처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선정된 22개의 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다문화, 위기가정, 지역사회 등 다양한 입소자 및 이용인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일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22개소에 기능보강 지원사업 배분금 2억3천만원을 전달했다.

형태로 신청 받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기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박흥철 사무처장은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당면한 복지현안과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배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모금회 배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보건복지타운 내에서 열린 증평군가족센터 개관식에서 관계자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증평군가족센터 개관... 보건복지타운 내 신축 이전

50억원 투입... 돌봄교실·공동육아나눔터 등 들어서

증평군은 9일 홍성열 증평군수, 연풍희 군의회 의장, 임호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평군가족센터

터 개관식을 열었다. 군은 2020년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50억원(군특 15억, 도비 10억, 군비25억)을 들

여 증평읍 내성리 보건복지타운에 연면적 1,80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가족센터를 새로 지었다.

2003년 지어진 기존 가족센터 건물(328.4㎡)은 장동리에 위치했었으나 늘어나는 문화수요 증

대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지난 2017년부터는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가족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 확장 필요성이 더욱 커져 보건복지타운으로 신축·이전했다.

신축 건물 1층에는 언어치료실과 돌봄교실을, 2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강당,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행복상담실을 3층에는 장난감도서관, 공유주방, 다함께 돌봄센터를 배치했다.

가족센터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체험활동, 안전교육 등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번역서비스, 사례관리, 가정방문교육 등도 운영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 센터 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군민 정신건강, 우리가 책임진다”

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동네의원 마음이음’ 시범 운영

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 연말까지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마음 청진기)’을 시범 운영한다.

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달 27일과 30일 단양 관내 4개 의원(늘어난 정형외과, 단양의원, 서울삼성의원, 중앙연합의원)과 협약을 맺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중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의뢰하는 서비스다.



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마음 청진기)’ 참여 의원과 협약을 맺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의학 정보에 따르면 일부 우울증 환자는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신체 증상이 지속될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규원 군 보건소장은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잠재적 우울 환자의 조기 발견으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좋은이웃들 봉사단’ 영서동 장애가정 청소봉사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은 영서동 장애가정을 찾아 청소봉사를 펼쳤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양순경) 소속 봉사단체인 ‘좋은이웃들’이 지난 8일 영서동 장애가정을 찾아 청소봉사를 실시했다.

해당 가정은 고령의 아버지와 장애인 아들이 함께 살던 세대로 아버지의 사망 후 유품정리 등 집안 곳곳에 청소가 필요했지만 장

애를 가진 대상자의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좋은이웃들”은 사연을 접하고 신속하게 봉사자를 모집해 옥상부터 집안 곳곳에 이르기까지 청소봉사를 펼쳤다.

양순경 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항상 좋은 이웃으로 서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KT&G 충북본부, 어린이재단에 2000만원 기부

영동군 소외 아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KT&G 충북본부는 9일 충북권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임직원 기부청원제를 통한 ‘상상펀드’ 후원금 2,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전달했다.

KT&G 충북본부(본부장 이병태)는 9일 충북권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임직원 기부청원제를 통한 ‘상상펀드’ 후원금 2,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차용기)에 전달했다.

KT&G가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기부청원제’는 KT&G 임직원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통해 ‘상상펀드’ 후원금 2,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총 200개 이상이 될 경우, ‘상상펀드’를 활용해 후원하는 KT&G

만의 독창적 기부제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 기부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이뤄지며,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과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에 연간 약 40억원 규모로 활용된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영동군에서 추운 겨울 온수가 나오지 않아 아궁이로 물을 끓여야만 하는 낡은 흙집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있는 11살 아동 가정의 주택 철거 및 조립식 주택 개축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태 본부장은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스럽게 모은 기부금으로 아동이 자라나는 데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더욱 의미있다”며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통일 한결음’

청주월드휴먼브리지, 문화탐방 지원사업 후원



충북하나센터는 지난 18일 북한이탈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지원사업 ‘통일 한결음’을 진행했다.

충북하나센터(센터장 백운기) 대에서 문화탐방 지원사업 ‘통일

한결음’을 진행했다.

청주월드휴먼브리지(대표 안광복)의 후원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방문해 그리운 고향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헤이리마을에 방문하여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건축물을 관람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낯선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백운기 센터장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모두가 하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주복지재단 ‘건강블록’ 교구 지원

노인돌봄서비스기관 10곳에 인지·신체활동 교구 200상차



(재)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은 돌봄서비스 기반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블록’ 교구를 제작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주복지재단은 이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개소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수행기관 4개소

등 총 10개 기관에 200상차의 ‘건강블록’ 교구를 지원했다.

‘건강블록’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건강블록’은 인지와 신체기능을 활성화하는 놀이교구다. 치매예방 교구로 많이 활용되는 젠가에 노인운동법 51가지 미션이 적용돼 감각기능 향상과 신체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블록을 지원받은 한 기관의 실무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구를 제작·보급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교구를 활용해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고용및직업

주거지원

보육및교육

의료및건강

요양및돌봄

정신및심리정서지원

문화및여가

권익보장및법률

일상생활지원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충북복지넷
www.043w.or.kr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께 드리는 약속’…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과제 제시

‘사회적 약자 포용’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차별·소외없이 함께하는 사회 구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이중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세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아홉 번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개혁하고 사회혁신을 통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또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등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세번째 국정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과 국정과제(7개)를 살펴본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① 상생의 연금개혁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해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②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한다. 또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한다.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① 저소득층 생계안정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②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해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 한다. 또한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③ 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금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내직소 특세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①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에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의 신뢰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②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민관합동 사회 서비스 혁신태스크 포스(TF,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구성·운영으로 공급기관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③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①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리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 또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②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기관을 연계해 커뮤니티 돌봄을 실현한다.

③ 4차 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이에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등을 확대해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한다.

또한 고령친화 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해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④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하고 계약 의사제 내실화 등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 환경개선을 병행한다.

⑤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을 완화한다. 급성 기병원(생명이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 완화, 질병이나 부상 통증을 감소, 부상이나 질병의 합병증 및 악화 방지 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해 실효를 방지한다.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① 부모급여 신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②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과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③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을 확대하고 아이 돌보미와 민간육아 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④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업’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한다.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 적건강 관리체계 구축한다.

⑤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①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②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해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③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직업재활·일자리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④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월제에 장애인 아우처 택시를 확대한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①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 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한다.

②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 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③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다.

④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을 증진한다.

⑤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 가구,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도 개선한다. 아울러 수용자 인권 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역시 보장한다. 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에서 80점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감 657호〉

“윤석열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국정목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이 보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3.



대한민국정부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노인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원 → 40만원)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35% 목표)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 근로장려금 최대지금액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 기업사회공헌 활용 등 통해 노인일자리 확충
-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확대
-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0~11개월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23년 70만원, 24년부터 100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 복지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 도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 장애특성·유형 감안 적합직무모델 개발

누구나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상향 등)
- 동물학대 범죄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역·업종별 맞춤형 산재 예방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종(해운 등))
- 특고·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적용대상 확대
- 성별노공무시제 단계적 도입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구직자 생애주기별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채용 등 기업 패키지 지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AI 등 신기술 기반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및 일터학습 지원

-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 훈련프로그램 개선
-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 은행제’ 구축
- 메타버스 등 신기술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복지광장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한반도 지도 색을 4년 전과 정반대로 바꾸며,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는 끝났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인물보다는 정당 위주의 선거 결과가 그렇고, 유권자의 반이 투표권을 포기했다는 것도 아쉽다.

20대, 30대 남·여의 생각의 차이도 40대, 50대와 60대, 70대의 생각 차이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유권자의 한 명으로 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

서 느꼈던 몇 가지 느낀 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일꾼을 뽑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일꾼을 선출하는데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당에서 지정한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현재의 선거방식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거대 양당에 줄을 대지 않고서는 지역을 위해 봉사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기초의회를 없애야 한다거나,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배출하고자 갖가지 꼼수를 동원하며 선거에 임하는 양 당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정치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해본다.

더 안타까운 것은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마저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4년 전과 비교하여 5배가 늘었다는 것이다. 즉,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가 508명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명을 뽑는 선거

구에 양 당에서 1명씩 후보를 내세

운 경우에는 선거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투표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하는 약속, 즉 공약에 대한 정치권의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중요한 약속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공약을 표를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의 문스럽다. 언제부턴가 유권자들 역시 정치인들의 약속을 그다지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공약(公約)에는 후보자의 의지나 정책이 담겨야 하지만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공약(空約)’이 많다는 지적을 정치권에서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북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2021년부터 충북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를 포함한 17개 직능단체가 참여)를 구성하여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모아진 의견들은 공약자료집으로 만들어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고

육감 후보 캠프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공론을 통해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후보자들로 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는 못했다. 물론 선거운동 과정이 막바지로 치닫는 중요한 시기였기에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한 서운함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활동까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각 직능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은 사회복지현장의 당면과제이기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오랜 숙제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현장의 오랜 숙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다.

선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당선자들이 유권자와 한 약속들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

아무쪼록 이번 당선되신 분들은 주민 위에 군림하기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진정한 지역일꾼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기를 바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소회所懷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유용과 적용



나동석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분야에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이 가능한가? 조사연구를 하는 동안에 지속되었던 질문이었다. 나의 대답으로는 어떤 유용성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를 되물었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의 생활이 메타버스전환으로 환경이 바뀌어 진다면, 전환의 정도에 따라 갖는 유용성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가? 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할 때, 클라이언트가 갖는 메타버스의 유용성은 무엇이 있을까? 4가지를 질문해봤다. 그동안 기관에 갈려고 해도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궂을 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본인의 정보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상세계의 활용으로 기관을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자신과의 처지가 비슷한 대상자를 폭넓게 확장시켜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회성은 측정하고자하는 유용성 중에서 가장 낮은 태도를 보여줬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기관이 얻을 수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도 4가지로 살펴봤다. 업무의 영역을 지금의 공간보다는 확대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업무영역의 확대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증가할지라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들도 많았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많이 증가해도 메타버스의 특성을 살려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질적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많은 대상자들이 동시에 접속함으로써 개인실천보다는 집단실천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사회복지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프로그램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2D수준에서 제공하는 있는 안내를 실제적인 느낌을 갖는 메타버스로 제작하여 보여준다면 메타버스를 경험하였거나 익숙한 대상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벤트행사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접근이 쉬워질 것이고 흥미로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강의에 있어서도 다양한 메타버스의 유형을 융·복합적으로 동원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업무에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대두된 재택근무가 갖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나아가 클라이언트와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비대면 만남의 상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피해자들의 상담을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이나 아바타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환기시켜 주기도 했다.

사실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 정부예산의 지원에 의존을 기대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았지만 지역사회의 후원단체로부터 지원과 협업을 통해서 구축해보려는 사회복지사들은 상당히 적었다. 문제는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이 오로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만 이루어지다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사회복지의 흐름이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경향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의 자치적인 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한 지역사회공동체를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공 대 민간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메타버스전환이 이루어진 뒤에 사회복지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궁금하다.

일상생활에서도 메타버스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체험실을 갖춘 사회복지기관을 보면서 민간중심의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시도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메타버스로도 우미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에서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



성수현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과장

12년 전 우연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원서 내고 장애인 복지에 뛰어들었다.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복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를 할 당시 타 시설 관계자 및 보호자들이 “무슨 장애인이 자립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곤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비장애인들처럼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누리고 일도 하고 싶어

하고 배우지 못한 교육도 하고 싶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동이 힘들어서,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해서, 일할 곳이 없어서, 복지관이 없어서 등 아직도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나마 보호자가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노령이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의 장애인들은 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필자 또한 장애인 당사자이고 배우자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다. 현재는 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아쉬움이 있다. 특히, 이동 시 제약이 많고, 장애인복지관들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참여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체감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위해 이동, 교육, 주거, 노동 등 인프라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에서 비장애인분들과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하거나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시위로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출근시간대에 시위를 벌여 큰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몇십 년 동안 그들이 외쳤던 목소리를 때면 외면하다가 최근 들어 이슈화가 되며 빛을 보게 된 경우다. 아직도 장애인들을 같은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발달장애인은 사실상 24시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의 대부분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가정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주간 보호센터, 주간 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보호작업장 등 많은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일부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고 서비스 이용하더라도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저렇게 서비스가 많은데 돌봄 시간이 부족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복지원으로 서비스 혜택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을 외치고 있다. 다수의 장

애인 부모도 자녀를 시설로 보내는 것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탈시설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정착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들은 시설에 맞는 곳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는 미래보단 현실 먼저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무기한으로 준비만 하고 있을 순 없기에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을 지자체에 묻고 싶다.

또한, 충북도 일부 지역에만 몰려 있는 인프라를 시·군으로 분산시켜 어느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 새로운 도지사님과 각 시·군장님, 의회 의원님들에게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이나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장애인 자립에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자도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꿈꾸며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상처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A.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

Q 지난 9월 초 태풍 링링이 불어와 저희집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1층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유리창 파편에 맞아 다리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손해와 행인의 상처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태풍, 공작물 책임

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되고, 이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해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서 위 사례와 같이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행인이 다친 경우 유리창의 소유자가 공작물책임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태풍은 예상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리창의 소유자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미리 예

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러한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유리창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발생의 위험성을 두 차례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차주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칙적으로 유리창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 차주와 행인에게도 경고조치를 무시하는 등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기아대책 '기대플러스']기아대책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희망동지'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사업대상 및 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 중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대상자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유관기관으로 지역복지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실 등)
- 지원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생계비(최대 600만원), 의료비(최대 1,000만원), 주거비(최대 500만원), 교육비(최대 300만원), 심리정서치료비(최대 10회 기준)
- 문의: 02-544-9544
- 참고: <https://hope.kfhi.or.kr/>

[밀알복지재단]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최대 500만원), 재활치료 및 의료 소모품 지원(최대 240만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신청방법: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miral.org/>) 접속 후 신청서 등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모집기간: 상시접수(해당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참고)
- 문의: 070-7462-9135

[코아드]코아드 자문료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 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으로 문의 가능

[여승사회복지재단]함께독서' 도서 무료배도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함께독서 공지사항 확인 - 신청양식 확인 -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4,000~5,500원 / 지역에 따라 요금 상이)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02-553-3488

[KT&G복지재단]2022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선정발표(매월 마지막 주)→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 주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 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참조

[KT&G복지재단]2022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차상위,수급,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 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 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ngwelfare.org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 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 2585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자원 봉사자 모집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센터 :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843-1432

▶ 점자도서 워드임력 봉사
관리센터 :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37-5544

▶ 스마트기기 사용법 안내 상담
관리센터 :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36-0111

▶ 주방봉사(설거지)
관리센터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75-7411

▶ 행정업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883-2470

▶ 아동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36-3600

▶ 배식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 제천시실버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651-4568

▶ 학습정서 멘토링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857-5960

▶ 찾아가는 실버건강대학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834-3411

▶ 도시락 배달 봉사
관리센터 :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88-142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스마일봉사단, 환경정화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나우리회(회장 김영동) 및 스마일봉사단(회장 박종득)

등은 지난 6월 12일 제천시 작은동산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나우리회와 스마일봉사단은 각 2010년, 2014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스마일봉사단 박종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봉사활동이 어려워 2년만에 연합

활동을 재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작은동산의 쾌적한 환경 관리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상해 공제보험)



- ✓ 저렴한 공제로 (보험료, 자부담 1만원)
- ✓ 1년 365일 24시간 보장 (업무 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도 보장)
- ✓ 장기 납입의 부담이 없음 (1년 단위 갱신형 상품)
- ✓ 계약직 종사자도 가입 가능

■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법인·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1인당 보험료(2만원) 중 50%(1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공제보험입니다.
자부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보험 담당자가 시설을 대표하여 단체로 가입하는 공제보험입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법인·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1인당 보험료(2만원) 중 50%(1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공제보험입니다.
자부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 한국사회복지공제회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 IT 빌딩 9층
홈페이지 : www.kwcu.or.kr 대표전화 : 02-3775-8899

복/지/만/평

벽

이창신 www.bokmani.com



생각을 바꾸면 장애물을 시설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